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임세미¹, 염영란^{2*}

¹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Happiness of Low-Grade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 COVID-19 Pandemic

Semi Lim¹, Young-Ran, Yeom^{2*}

¹Assistant Professor, Dep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행복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2022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01월 5일까지 G시 소재 두 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학년과 2학년 1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t-test, ANOVA, Scheffe test, Games-Howell 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행복감은 스트레스($r=-.17, p=.017$)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사회적 지지($r=.68, p<.001$)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은 사회적 지지($\beta=.63, p<.001$), 학과 만족도($\beta=-.13, p=.015$) 순으로 총 변화량의 49.7%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키워드 : 간호, 대학생,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행복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stress,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COVID-19 pandemic,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happines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18, 2022 to January 5, 2023. The subjects were 195 first and second grades nursing students attending two universities located in G city.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Scheffe test, Games-Howell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Statistically, happiness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stress($r=-.17, p=.017$) and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r=.68, p<.001$). Influencing factors on happiness were social support($\beta=.63, p<.001$) and department satisfaction($\beta=.30, p<.001$) accounting for 49.7% of the total change. In order to improve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trategies and programs that can increase social support and department satisfaction are needed.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tress, Social support, Happines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 funds from Gwangju University in 2023.

*Corresponding Author : Young-Ran Yeom(pseudoan@naver.com)

Received April 22, 2023

Revised May 17, 2023

Accepted June 20, 2023

Published June 28, 2023

1. 서론

2022년 세계 행복 지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행복 지수가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이었고[1], 보건복지부의 2021년 COVID-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자살 생각 비율이 2020년에 비해 40%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이며, 특히 10~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나타났다[2]. 2022년 통계청 자료[3]에 따르면, 20대 미만에 비해 20대는 약 3배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책임감이 더욱 막중해지는 대학생들 중의 적응과 졸업 후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시기에 COVID-19의 장기화는 환경변화 및 정신건강, 수업방식을 변화시켜 대학생의 자퇴가 증가하고 특히 신입생의 상당수가 학교생활의 부적응 문제로 자퇴를 선택하였다[4]. 신입생에게 대학 생활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업 중단은 학교생활에 실패했다는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5] 대학 생활의 적응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도움이 필요하다. 워드 코로나로 인해 점차 일상생활이 정상화되면서 대면 수업, 오프, 학교 축제 등 학생들과의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학생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상생활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회복, 사회적 지지, 상호소통 등 대학 생활의 적응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 행복감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6].

행복감은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으로 [7] 행복한 순간을 자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로 확인되었다[8].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나 상황에 닥쳤을 때 느끼는 위협과 불안을 느끼는 감정이며[9],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주변의 지원이나 도움을 말한다[5]. COVID-19 팬데믹 상황을 경험한 학생과 학교 사이의 간극을 채울 수 있는 역할은 교수가 할 수 있으며, 교수의 지지는 대학생 행복 지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0].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지지로 변수를 확대하여 본 연구에 적용하고자 한다.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자기조절 능력이 높아 우울과 자살 증상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8], 사회적 지지는 스

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원만한 대학 생활의 적응에 도움이 된다[5]. 또한 사회적 지지는 인간의 적응과 심리적 부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11], 긍정적인 면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잘 받아들여 학과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12] 행복감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3,1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대처 및 자아존중감을 상승시켜 이들의 대학 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대학생의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학년, 학교만족, 대인관계 [16] 등으로 본 연구에서도 일반적 특성으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대처 전략이 필요하며, 인간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므로 타인에게 받는 애정과 관심이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8].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는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행복감을 증진 시키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행복감의 관계를 확인하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G시에 소재한 두 개 간호학과에 현재 재학 중인 1, 2학년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본크기는 G*Power 3.0.10 program를 이용하였다. 대상자 수 산정을 위해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의 다중회귀분석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15] 및 선행연구[13-16]를 참고한 예측변수 14개(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성별, 연령, 학년, 종교 유무, 동아리 유무, 부모동거 유무, 아르바이트 유무, 건강상태, 대인관계, 학교만족도, 용돈정도)를 적용한 결과 최소 표본 수가 194명

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는 250명의 학생에게 설문 요청을 하였으나 연구 참여에 동의한 195명이 설문을 하여 탈락한 설문 없이 총 195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종교 유무, 동아리 유무, 부모동거 유무, 아르바이트 유무, 건강상태, 대인관계, 학과만족도, 용돈정도로 구성하였다.

2.3.2 스트레스

Park와 Kang[17]이 대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33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연인(3문항), 친구(4문항), 교수(4문항), 가족(3문항), 학업(6문항), 진로·취업(3문항), 경제(5문항), 가치관(5문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경험없음' 0점, 경험한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음' 1점에서 '늘 받음'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와 Kang[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4,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다.

2.3.3 사회적 지지

Zimet 등[18]이 개발한 도구인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하위요인은 가족(4문항), 친구(4문항), 의미 있는 타인(4문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각각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7, .85, .91이었고 전체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에 대한 각각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4, .97, .93, 전체 Cronbach's α 는 97로 나타났다.

2.3.4 행복감

Suh와 Koo[19]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단축형 행복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개의 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삶의 만족감(3문항), 긍정적 정서(3문항), 부정적 정서(3문항)으

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전혀 느끼지 않았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항상 느꼈다)' 7점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측정된다. 행복감 점수는 만족감 점수와 긍정 정서 점수를 합한 후 부정 정서 점수를 뺀 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Suh와 Koo[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2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22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은 google 폼에서 설문지를 만들어 배포한 후 URL로 접속하여 자가 보고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지도학생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본인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으로 설문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대해 설명을 하고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의 취지와 목적, 대상자의 비밀보호, 진행방법, 중도철회 등을 설명하고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설문작성에는 약 1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설문이 끝난 후 자료는 연구자만 열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에 대한 분석은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e test와 Games-Howell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행복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 164명(84.1%), 남성 31명(15.9%)이었다. 학년은 1학년 86명(44.1%), 2학년 109명(55.9%)이었다. 연령은 24세 이하가 138명(70.8%), 종교는 '없다' 144명(73.8%)

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은 79명(40.5%)였고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은 132명(67.7%),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93명(47.7%)였다. 건강상태 '좋다'가 122명(68.2%), 대인관계 '좋다'가 133명(68.2%), 학과 만족도 '높다'가 114명(58.5%)이었다. 용돈정도는 20만원 미만인 48명(24.6%),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이 45명(23.1%),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42명(21.5%)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31(15.9)	
	Female	164(84.1)	
Grade	1st	86(44.1)	
	2nd	109(55.9)	
Age (yr)	≤24	138(70.8)	24.46±6.81
	>25	57(29.2)	
Religion	Yes	51(26.2)	
	No	144(73.8)	
Student circles	Yes	79(40.5)	
	No	116(59.5)	
Currently live with parents	Yes	132(67.7)	
	No	63(32.3)	
Part-time job	Yes	93(47.7)	
	No	102(52.3)	
Health State	Good	122(62.6)	
	Moderate	71(36.4)	
	Bad	2(1.0)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33(68.2)	
	Moderate	62(31.8)	
Department Satisfaction	Good	114(58.5)	
	Moderate	78(40.0)	
	Bad	3(1.5)	
Monthly allowance (10,000won)	<20	48(24.6)	
	20~<30	42(21.5)	
	30~<40	45(23.1)	
	40~<50	28(14.4)	
	≥50	32(16.4)	

3.2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행복감 정도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행복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스트레스는 165점 만점에 30.29±

Table 2. Degree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N=195)

Variables	M±SD	Min-Max	range	Average M±SD
Stress	30.29±19.45	0-107	0-165 (0-5)	0.92±0.59
Social Support	67.53±15.84	12-84	12-84 (1-7)	5.63±1.32
Happiness	17.10±5.44	3-30	-(15)-39 (1-7)	0.56±1.03

19.45점, 사회적 지지는 84점 만점에 67.53±15.84점, 행복감은 39점 만점에 17.10±5.44점으로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정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정도는 Table 3과 같다. 건강상태(F=5.99, p=.003), 대인관계(t=4.45, p<.001), 학과만족도(F=9.40,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결과 건강상태는 ' 좋음'이 '보통'보다, 대인관계는 ' 좋음'이 '보통'보다, 학과만족도는 '만족'이 '보통'보다 '보통'이 '불만족'보다 행복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gree of happines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19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F (p) post hoc
Gender	Male	31(15.9)	16.45±6.54	-.73 (.469)
	Female	164(84.1)	17.23±5.23	
Grade	1st	86(44.1)	17.27±5.43	.38 (.708)
	2nd	109(55.9)	16.97±5.47	
Age (yr)	≤24	138(70.8)	17.58±5.34	1.92 (.057)
	>25	57(29.2)	15.95±5.55	
Religion	Yes	51(26.2)	16.43±6.23	-1.03 (.307)
	No	144(73.8)	17.34±5.14	
Student circles	Yes	79(40.5)	17.57±5.62	.99 (.324)
	No	116(59.5)	16.78±5.32	
Currently live with parents	Yes	132(67.7)	16.89±5.27	-.77 (.440)
	No	63(32.3)	17.54±5.80	
Part-time job	Yes	93(47.7)	16.81±5.78	-.72 (.470)
	No	102(52.3)	17.37±5.13	
Health State [†]	Good ^a	122(62.6)	18.11±5.32	5.99 (.003) a>b
	Moderate ^b	71(36.4)	15.45±5.29	
	Bad	2(1.0)	14.00±4.24	
Interpersonal relationship	Good	133(68.2)	18.23±5.25	4.45 (<.001)
	Moderate	62(31.8)	14.68±5.10	
Department Satisfaction [†]	Good ^a	114(58.5)	18.40±5.25	9.40 (<.001) a>b>c
	Moderate ^b	78(40.0)	15.42±5.24	
	Bad ^c	3(1.5)	11.33±0.58	
Monthly allowance (10,000won)	<20	48(24.6)	16.90±5.78	.54 (.704)
	20~<30	42(21.5)	16.33±5.73	
	30~<40	45(23.1)	18.02±4.81	
	40~<50	28(14.4)	17.11±5.17	
	≥50	32(16.4)	17.10±5.44	

† Games-Howell test

3.4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행복감은 스트레스(r=-.17, p=.017)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사회적 지지(r=.68,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ress, social support,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happiness
(N=195)

Variables	Stress	Social Support	Happiness
	r(ρ)	r(ρ)	r(ρ)
Stress	1		
Social Support	-.13 (.065)	1	
Happiness	-.17 (.017)	.68 (\ll .001)	1

3.5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행복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건강상태, 대인관계, 학과만족도를 가변수 처리 후 포함시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충족에 대한 검토의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으로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또한 오차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공차한계(Tolerance)는 0.73~0.97로 0.3이상 1.0이하였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Happiness (N=195)

Variables	B	S.E	β	t	ρ	Tolerance	VIF
(constant)	3.74	1.45		2.58	.011		
Social Support	.22	.018	.63	11.77	\ll .001	.91	1.10
Department Satisfaction (Bad) reference=Good	-5.59	2.28	-.13	-2.45	.015	.97	1.03
Department Satisfaction (Moderate) reference=Good	-1.25	.65	-.11	-1.92	.056	.76	1.32
Interpersonal relationship (Moderate)	-.77	.70	-.07	-1.10	.271	.73	1.38
Health state (Moderate) reference=Good	-.64	.66	-.06	-.98	.328	.77	1.30
Health state(Bad)reference=Good	-1.84	2.86	-.03	-.64	.520	.92	1.09
Stress	-.01	.02	-.02	-.38	.708	.85	1.18

F=28.35 (ρ < .001), R²=.515, Adjusted. R²=.497, Durbin-Watson : 1.88

Inflation Factor, VIF)는 1.03~1.38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8.35, ρ < .001) 수정된 결정계수는 .49이었다.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β =.63, ρ < .001), 학과에 불만족하는 경우(β =-.13, ρ =.015) 순으로 총 변화량의 49.7%를 설명하였고 Table 5와 같다.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G시에 소재한 두 개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한 교육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0.92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한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 2.21점[20], 5점 만점에 평균 2.90점[21]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에 해당하는 경험이 없는 경우 0점으로 점수화되었고 COVID-19로 인해 연인, 친구, 교수 등과의 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어 스트레스 점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반면, 선행연구[20,21]에서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공교과목과 임상실습이 집중되는 학년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대학차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연구결과[21,22]를 보이고 있어 추후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정도와 대학차원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7점 만점에 5.63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평균 5.91점[21]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5점 척도로 구성된 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3.95점[14], 3.89점[23], 3.86점[24]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점수를 살펴보면, 가족, 친구, 주위사람 혹은 의미 있는 사람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21]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중 주위사람 혹은

의미 있는 사람, 친구, 가족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COVID-19로 인해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답함, 우울감을 경험하며 인간관계의 폭이 다소 좁아지는 현상에 따라[25] 교수, 선후배, 동기 등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 내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한 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지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행복감은 39점 만점에 평균 17.10점, 7점 만점에 평균 0.56점, 100점 환산점수 57.00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7.77점[26]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았고, 다른 도구를 사용한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도 6점 만점에 4.03점[27], 7점 만점에 평균 5.03점,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71.4점[20]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였다. 선행연구는 COVID-19 발생 전에 시행되어 분석한 결과로 본 연구결과와 비교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COVID-19 확산에 따라 '코로나 블루 현상'과 '언택트' 생활양식은 심리적인 변화[28]로 이어져 행복감이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건강상태, 대인관계, 학과만족도가 좋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9]의 연구에서 건강상태, 전공만족도가 좋을수록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학년부터 간호학 전공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직인 간호사의 다양한 활동을 인식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행복감은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행복감은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8,21]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고 주변 인적 자원의 지지를 받아 잘 적응하여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의 영향요인은 사회적 지지, 학과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beta=.63$)는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학과 만족도가 나쁜 경우($\beta=-.13$) 행복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m과 Lee[30]의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종교, 학년, 월수입,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행복감 정도는 COVID-19 이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에 따르면, 초기단계에는 감염에 대한 불안 및 공포를 보였고, 지역사회감염 시작 및 확산 단계에는 코로나에 대한 혐오 및 분노로 심리변화가 있었다. 장기화 단계에는 무기력감과 우울을 호소하며 자살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26]. 따라서, 이와 같은 심리변화의 단계를 거친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일상 행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과의 소통 및 사회적 지지가 형성되어 행복감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저학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와 행복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과 만족도가 좋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행복감은 사회적 지지와는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보였다. COVID-19 팬데믹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영향요인은 사회적 지지, 학과 만족도로 설명력은 49.7%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자원을 활용하고 학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트레스 도구는 연인, 친구, 교수, 진로·취업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0점

으로 점수화 되었기에 COVID-19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연구도구의 선택에 제한점을 갖는다. 둘째,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 내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되었으므로 연구결과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지역 두 개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추후 다른 계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학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행복감에 대한 반복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Case News. (2022). South Korea's happiness index, 36th out of 38 OECD countries, is at the bottom... 1st is Finland. Name of Web Site. <http://www.casene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07>
- [2] Pressian News. (2022). Suicide is the No. 1 cause of death among people in their teens and 30s...Korea's suicide rate is undisputedly No. 1 in the OECD. Name of Web Site.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2713574355237>
- [3] Statistics Korea. (2022). Health indicators. Name of Web Sit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732&tblId=DT_732001_Q607&conn_path=I2
- [4] K. Lim. (2021). College students' class satisfaction and counseling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2(2), 29-58. DOI : 10.22768/JFLS.2021.2.2.29
- [5] S. Kim. (2023). A study on college life and perception experienced by 20th and 21st year students in the transition to online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2, 157-188. DOI : 10.24173/jge.2023.01.22.6
- [6] K. S. Shon. (2022). A study on the positive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with COVID-19: Focusing on friendship and happiness. *Journal of Social Thoughts and Culture*, 25(2), 105-137. DOI : 10.17207/jstc.2022.6.25.2.4
- [7] E. Deiner, & M. Deiner. (2009).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8] N. Kim. (2021). A study on the effects of adolescent stress on happiness and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friend, family, teacher).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1), 871-882.
- [9] R. S. Lazaru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10] M. Chung. (2021). The impact of stress on undergraduates' happiness: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suppor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5), 565-577. DOI : 10.22143/HSS21.12.5.40
- [11] M. S. Jung, Y. S. Kang, M. H. Ko, D. H. Kim, S. Y. Kim, E. K. Kim. (2012). *Nursing conceptual theory*. Hyunmunsa.
- [12] S. O. Kim. (2017).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positive thinking on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435-444. DOI : 10.14400/JDC.2017.15.12.435
- [13] Y. C. Kwon, C. Y. Jeong, & Y. S. Seo. (2018). Validation of a path model for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197-206. DOI : 10.14400/JDC.2018.16.1.197
- [14] J. H. Kim, & H. O. Jeon. (2016).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5(2), 123-132. DOI : 10.12934/jkpmhn.2016.25.2.123
- [15] J. Kim & H. S. Park. (2015). The factor related to happines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1), 545-559. DOI : 10.5977/jkasne.2016.22.2.182
- [16] E. Jung. (2016). College students'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their subjective happiness. *Journal of Leisure Studies*, 14(1), 47-62. DOI : 10.22879/slos.2016.14.1.47

- [17] J. H. Park & S. W. Kang. (2021). Validity and reliability of daily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5), 423-432. DOI : 10.5762/KAIS.2021.22.5.423
- [18] G. D. Zimet, N. W. Dahlem, S. G. Zimet, & G. K. Farley.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 [19] E. K. Suh & J. S. Koo. (2011).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 96-114.
- [20] E. M. Kim, Y. H. Yang, H. Lee, & M. Yu. (2016).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2(3), 294-303. DOI : 10.5977/jkasne.2016.22.3.294
- [21] Y. S. Kim & M. Y. Han. (2015). Factors influencing happiness index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1(5), 501-510. DOI : 10.11111/jkana.2015.21.5.501
- [22] J. H. Kim & H. O. Jeon. (2016).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sycho-social factor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5(2), 123-132. DOI : 10.12934/jkpmhn.2016.25.2.123
- [23] I. Y. Cho. (2020).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bjective happin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3), 118-128. DOI : 10.5762/KAIS.2020.21.3.118
- [24] M. O. Yu.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positive thinking and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3), 110-117. DOI : 10.5762/KAIS.2021.22.3.110
- [25] H. E. Lee & S. H. Lee. (2021). An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changes and coping experience due to COVID-19.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6), 405-417.
- [26] E. Y. Kim. (2017). A study on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9), 385-395. DOI : 10.14400/JDC.2017.15.9.385
- [27] S. J. Kim. (2019).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on the associ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8(2), 103-113. DOI : 10.12934/jkpmhn.2019.28.2.103
- [28] J. K. Hong. (2020). A study on corona and daily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and Affluence Studies*, 9(2), 17-30.
- [29] M. R. Lee. (2020). The effect of anger and gratitude on th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5(2), 173-180. DOI : 10.21032/jhis.2020.45.2.173
- [30] M. H. Nam & M. R. Lee. (2014).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0), 363-374. DOI : 10.14400/JDC.2014.12.10.363

임 세 미(Semi Lim)

[정회원]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석사
- 202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과 박사
- 2021년 4월~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nccsemi@gmail.com

염 영 란(Youngran Yeom)

[정회원]



- 200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석사
- 2019년 8월 : 단국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 2019년 9월~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pseudoan@naver.com